

##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분야별 심의 총평

### 연극분야

- 일시 : 2017년 1월 25일(수) 오후 2시~3시
-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은 2월 심의 사업의 심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개하지 못하고 심의 종료 후에 공개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연극분야는 총 9건의 지원신청을 접수하여 최종 4건의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비평지원 사업은 창작 이후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공연의 의지와 운명은 늘 시대와 어긋난다. 공연이 이러한 불안의 산물이라면, 비평은 그 불안을 오롯이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잡지 출간, 세미나, 포럼 개최와 같은 사업들은 공연과 사회, 창작의 불안과 창작을 반추하는, 그것들의 사이와 엇갈림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비평지원 사업의 첫 번째 심의대상은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공연분야 기록 즉 사라지는 공연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구체적 사업이다. 삶과 현실과 백병전을 치루는 공연에 대한 비평작업은 잡지, 계간지, 연구모임의 기록의 역사로 구체화된다. 심의는 공연을 가두는 데 있지 않고, 그 사라짐에 대한 위로, 사라지는 공연에 관한 위안으로서 언어에 주목했다. 정기적인 비평지 발행지를 두루 지원하는 것은 비평언어에 대한 인정이고, 공연과 동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의는 공연과의 대화, 공연에 대한 사후 성찰과 사색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에 주목했다.

오늘날 비평 활동은 기존 연극의 범위와 질서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그러니까 작가를 이끌면서 공연을 성찰하는 글은 이미 지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대안예술, 미래예술이라는 이름처럼 새로운 언어를 지닌 비평작업은 공연예술의 확장과 만나고 있다. 심의의 두 번째 대상은 이런 현상들에 접근하면서 비평의 덕목과 훌륭한 계승으로서 비평의 지평을 넓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된 연극기록과 비평연구 발간사업이 공연에 관한 기록과 기억에 머물지 않고, 공연에 관한 새로운 풍경을 낳고, 공연의 주체인 극단과 작가들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 무용분야

- 일시 : 2017년 1월 23일(월) 오후 2시~3시
- 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은 2월 심의 사업의 심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개하지 못하고 심의 종료 후에 공개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심사에는 총 8건의 사업이 심의 대상이 되었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비평 분야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였고, 신규 신청된 디지털비평 사업을 포함한 총 8건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 사업에 포함된 ‘비평지원’ 무용분야는 (중요 사업의 수에 비해) 적은 예산이 심의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월간지 및 계간지들의 발행 사업과 역사성을 가진 세미나 등 열악한 환경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무용 비평 사업들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속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들 비평 사업에 대해 본 심의에서는 되도록 많은 사업을 선정하여 독려하고자 했으며, 적절한 예산 분배를 위해 고심하였다.

다만 이들 사업에 대해 그동안 사후평가가 없었던 만큼 동시대적 개혁과 발전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제출 서류의 무성의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열악하다는 이유로 무조건적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발전적 변화와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이는 사업을 선별하여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무용분야 심의위원 일동

## 음악분야

- 일시 : 2017년 2월 1일(수) 오후 12시~1시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2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국, 김용환, 박재성, 정종열, 정치용, 최광일, 한상일

<2017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비평지원 음악분야>에는 총 6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에서 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다.

심의 과정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심의 평가 기준 등이 설명된 자료와 지원 신청서가 사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에, 각 심의위원들은 모든 지원 서류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의가 진행되었다. 심의 당일에는 본 사업의 내용과 예산 및 지원의 규모 등 행정적 사항에 대한 예술위의 설명 후 각 심의위원들이 본 사업에 지원한 ‘음악분야 비평지원’의 평가 항목에 대한 검토 소회를 개진한 후에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상위로 선정된 단체의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토론식으로 진행되었고, 채점 후 그 결과에 따른 평가순위와 지원 필요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조정되어 배정되었다.

본 심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지원한 비평지들이 그동안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 노력과 실적, 집필진들의 전문적 역량에 따른 결과의 질적 수준이었다. 그리고 각 단체가 제출한 ‘비평지’가 본 사업의 목적과 사업취지에 충분히 상응하는가의 여부도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평지’가 아닌 오히려 전문적 ‘학술저널’의 특성을 가졌다고 판단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이런 단체의 경우 향후, 타 기관의 음악학 분야의 ‘전문학술지’ 발간 지원 유형으로 응모를 권장한다). 또한 공연에 대한 비평문보다는 주로 공연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소개, 연주자(단체)와의 인터뷰 등이 제공되어 음악관련 ‘정보지’의 성격이 더 농후하다고 판단된 신청사업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사업들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된다. 선정된 사업들은 단순한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음악 분야의 충분한 담론 형성과 일반 국민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기 바란다.

음악분야 심의위원 일동

## 전통예술분야

- 일시 : 2017년 1월 24일(화) 오후 2시~3시
- 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은 2월 심의 사업의 심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개하지 못하고 심의 종료 후에 공개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예술 분야의 비평지원 부문엔 총 4건 지원되었고, 4건 모두 선정되었다. 다만 심의 기준인 계획의 충실성과 수월성 40%, 실현 가능성 30%, 파급효과 30%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학술행사 2건과 출판물 발간 2건 접수되었는데, 심의 제출한 자료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을 묶어 보면 국악비평의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통예술 분야는 악·가·무(樂歌舞)뿐만 아니라 전통의 근간인 역사가 배경이므로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전통예술 분야에서 생산된 담론은 발산만 있지 수렴이 쉽지 않다. 언뜻 풍성하게 보이는 담론 현장조차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전통과 실험을 둘러싼 논쟁의 재구성에 그치고 있다. 비평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통예술현장과 현실의 괴리를 파고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신청한 4건 모두 그런 점에서는 정교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아주 아쉬웠다. 다만 심의 기준의 대전제인 비평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4건 모두 의의가 있다고 의견이 모여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